

“아내와 눈을 맞출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 병든 아내와 중증장애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이정호(가명)님의 이야기.

이정호(가명)님의 하나 뿐인 아들 준석(가명)이는 4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지적장애 1급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매일 누워서만 지냅니다. 아들을 돌보던 아내마저 자식의 고통을 나누듯 점점 몸이 쇠약해지더니 급기야 망상장애가 오고 말았습니다.

병든 아내와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돌보느라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정부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루하루 빛은 점점 쌓여만 가고, 절망감은 높아만 갑니다.

그러나 이대로 무너질 수만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덮쳐오는 우울감을 떨쳐내고 다시 힘을 내야만 합니다.

겨우 눈만 마주칠 뿐이지만 바라만 봐도 행복한 사랑하는 아들과 마음에 병이 생긴 아내를 지키고 싶은 이정호님에게는 지금 누구보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준석이의 치료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병원 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